

반정은 짧고 수난과 굴욕은 길었다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㉓

16대 인조와 인열왕후 - 정릉

인조 1595~1649(55세)
재위 1623.3(29세)~1649.5(55세)

정릉(章陵)은 조선 16대 인조(仁祖, 1595~1649)와 원비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 한씨의 합장릉이다. 인조는 1623년 인조반정으로 집권당인 대북파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재위 중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세 차례나 서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다. 인열왕후는 소현세자, 인평대군을 낳았고 용평대군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승하였다. 인조는 왕후를 파주부 북쪽 운천리에 장사지내고 그 오른쪽에 미리 자신의 수릉(壽陵)을 마련해 두었다가 승하 후 그곳에 묻혔다. 능 주변과 석물에 뱀, 전갈, 벌레 등이 집을 지어 불길하다 여겨 1731년(영조7)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 처음의 능은 건원릉의 석물제도를 본떠 심이직산상과 구름무늬를 보조한 병풍석, 장명등, 석수 등을 상설했는데 천장하면서 병풍석과 혼유석, 난간석, 장명등은 새로 만들었다. 다른 석물은 그대로 옮겨왔다. 정릉은 17세기와 18세기 석물이 공존한다. 사적 제203호. 경기도 파주시 갈현리 산 25-1 면적 34만5186㎡(10만4602평)



정릉 능침을 지키는 석호

조선 최대 굴욕 병자호란 발발 청과 군신관계 맺는 조약 체결 삼전도에 항복의식 비문 세워



삼전도 항복의식 비문 부조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반정의 대가를 특특히 치른다. 5000년 역사를 통틀어 최대 굴욕이 병자호란이다. 임진왜란은 세계 해전사에 연구 대상인 승리한 전쟁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은 한순간에 박살난 수난이었다.

임진왜란 중 의승군의 활약으로 상생세를 타던 불교의 위상이 인조(16대) 대에 다시 꺾인다. 인조는 즉위 후 바로 승려의 궁성 출입을 금했다. 그런 와중에도 승려들의 애국심은 변함없었다. 남한산성을 견고한 요새로 축성한 것은 승려들의 공력이었다. 팔도도총섭 각성의 지휘 하에 완공되었다. 불심으로 축조된 남한산성이 외교력의 부족과 국력이 허약하여 부끄러운 역사의 현상이 되어버렸다. 인조 때 일어난 병자호란은 발발, 전개, 결말이 참으로 치욕적이다.

인조정권은 광해군 때 후궁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반인륜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친명배금정책을 실시했다. 아무런 선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형제 관계를 맺지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1627년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침략했다. 이른바 정묘호란이다. 의주를 거쳐 평산까지 함락되자 정정은 강화도로 천도했으며, 최명갑의 강화 주장을 받아들여 양국 대표가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화약을 맺었다.

오랑캐와 형제관계를 맺자니, 인조와 당시 집권세력의 심기가 편치 않았다. 힘은 없으면서 분기만 하늘을 찌를 때. 그래서 다시 악수(惡手)를 본다. 1635년 인조비 인열왕후가 승하하자 능을 한양 북쪽에 조성했다. 오늘날 파주시 운천리, 임진강 남쪽이다. 병자호란의 불씨가 여기에 있다.

국장 발인 행렬의 모습과 출병하는 군대 행렬은 광경이 비슷하다. 깃발을 펴리며 기마병과 군사들이 대열을 이루어 행진한다. 인열왕후 발인 때 6770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려 따라 북진했으니, 이는 북침하는 출정군과 흡사하게 보인다. 첩보를 입수한 청나라의 심기가 편할 리 없다.

민심을 잃지 못한 것도 굴욕의 원인이다. 이 일대가 능으로 택지되자 7567에 달하는 백성들의 묘는 강제로 이장 당해야 했다. 이종 무연고 묘가 667기이고 연고 있는 묘가 89기라고 하나 무연고 묘는 대부분 이장할 비용이 없는 백성들의 선조묘로 추측된다. 당시 운천리에선 '왕비를 묻는데 수백기의 백성들 무덤을 파헤쳐야 하느냐'는 원망의 소리가 컸다고

한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민심을 돌보지 않았다.

1636년 12월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침입해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인조정권은 이를 막지 못하고 봉림대군·인평대군과 비빈을 강화도로 보낸 뒤, 남한산성으로 후퇴하여 항거했다.

조정에서는 전쟁 수행 여부를 놓고 김상헌·정은을 중심으로 한 척화파와 최명길 등 주화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주화파의 뜻에 따라 45일 만에 항복을 결정하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군신의 예를 맺었다. 이와 함께 소현세자·봉림대군과 척화론자인 삼학사, 즉 홍익한·윤집·오담제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냈다. 삼학사는 결국 그곳에서 처형되었다.

남한산성과 함께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유물이 삼전도비이다. 높이 3.95m. 너비 1.4m. 무게 32t. 대리석으로 된 비석이다. 청태종은 항복의식을 행한 삼전도에 자신의 공덕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라고 요구했다. 당대의 문장가 장유 등이 지은 글을 청에 보냈으나 내용이 미흡하다고 거부했다. 마침내 인조의 특명으로 이조판서 이경석의 글이 받아들여져 이를 비석에 새기도록 했다. 이경석은 후일 영의정까지 지내면서 평생 동안 문자 배운 것을 한탄했다.

공조에서는 삼전도에 비단을 놓고 크게 축조한 다음 비석을 세웠다. 글씨는 서예가로 명성을 날렸으며 '이충무공순신비'의 비문을 썼던 오준이 썼는데 그는 평생 그 한을 안고 살다 죽었다.

결국,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장소였던 삼전도에는 1639년 12월 8일 민족 최대 치욕의 상징인 '대청황제공덕비(大清皇帝功德碑)'가 세워졌다. 비문의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청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한 사실 등이다.

비의 앞면에는 한문, 뒷면에는 만주문(滿洲文)·몽골문으로 번역되어 비문이 새겨져 있다. 한 개의 비석 안에 3개국 문자가 들어 있는 특이한 비석이다. 또한 한 비 머리 이수, 받침돌의 귀부 조각도 정교하여 조선 후기의 가장 우수한 조각의 하나로 꼽힌다. 원래 석호 주변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치



정릉 제향의식

욕적인 의미 때문에 청일전쟁 때 때멸되었다. 1895년(고종 22)에 다시 세워지고, 1956년 국치의 기록이라 해서 다시 땅 속에 묻었다가,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우는 등 수난을 당했다. 서울시는 후세들에게 패배와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교훈이 되도록 비 일대에 50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 여기에 당시의 모습을 그린 부조비(浮彫碑)를 세워 1983년 5월 문을 열었다. 인조가 누워 있는 장릉은 비공개 능이다. 공개 못할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라기보다 워낙 외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의 인생 역정을 대변하듯 외롭고 쓸쓸하다. 관리사무소에 말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동조 세력과 함께 혈기 왕성하게 반정을 일으켰으나 재위 내내 불우했다. 정묘년, 병자년의 전란을 호란(오랑캐의 난)이라고 겨우 기록했지만 참담한 굴욕의 역사다.

글=이우상(소셜)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제16대 인조 가계도

선조 5년 원종(정문군)
인연 김씨

장남 제16대 인조 (능안군, 1595~1649)
•재위기간: 1623.3~1649.5
•부인: 5명
•자녀: 6남 1녀

인현왕후 구씨

인열왕후 한씨 (4남)
장렬왕후 조씨 (자서(자음))

귀인 조씨 (배출) (2남 1녀)
귀인 장씨 (속의 나씨)

소현세자 (봉림대군) 제17대 효종
인평대군
용평대군

송선군
낙선군
효명공주

황토삼백초 POWER BRAND

유기농

조여름 꽃 주위의 잎 3개가 어느날 갑자기 백색으로 변해 '삼백초'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또 꽃이 희고 잎이 희고, 뿌리가 희다고 '삼백초'라고 한다. 백색으로 변했던 잎이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본래의 초록색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식물로 우리몸을 정화하는 신비의 '정화초'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탁월한 효능 때문에 멸종의 수난을 겪어온 삼백초를 (주)진동소리 김삼목 원장의 피나는 노력으로 황토 삼백초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력과 특화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주)진동소리에서는 황토 삼백초를 먹기 편하도록 제품화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주)진동소리 055)945-2976

전국 대리점: 대구: 010-2531-4785 · 인천: 011-336-5843 · 대전: 010-7752-6009 · 대전: 042-536-8852 · 전주: 010-5706-1002 · 부산: 017-556-8311

국우애당인삼, 국우애당차, 황토삼백초월빙, 황토삼백초차, 황토삼백초패밀리, 황토삼백초추출액, 즐거운하루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제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컨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성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고무신코 만행화

조각무명, 사계절단화, 특무명, 3-1밴드

사부대중 선물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 가격: 90,000원
• 규격: 220~255mm
• 색상: 회색, 검정색

• 가격: 90,000원
• 규격: 220~255mm
• 색상: 회색, 검정색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합장

◆ 본사, 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